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2007 한국대선 패널조사 연구

이현우 · 권혁용 공편

EAI 여론분석 시리즈 ④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지은이 이현우 · 권혁용 공편

발행자 이흥구

발행처 (재) 동아시아연구원

편 집 곽소희 · 신영환

디자인 김민주

표지 디자인 송성재

발행일 2008년 3월 25일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전화 02-2277-1683 (대)

팩스 02-2277-1684

홈페이지 www.eai.or.kr

등록 제2-3612호 (02.10.7)

값 17,000원

ISBN 89-92395-06-9 (93300)

진보는 왜 한나라당을 지지했나? 이념 · 정당 · 지역 · 이슈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 내 영 · 정 한 울

한나라당을 지지한 진보의 증가: 이념성향과 정당지지의 불일치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 반한나라당 성향을 보였던 진보적 유권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 17대선정국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은 여전히 진보라고 여기면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17대 대선 이전까지의 투표 행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민주화 이후 각종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유권자는 김대중-민주당 계열 지지, 보수성향의 유권자는 이회창 - 한나라당 계열을 지지하는 이념성향별 정당지지패턴이 존재했다는 점을 밝혀왔다. 강원택은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을 통해 한국 선거를 지배해온 지역주의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그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민자당 - 신한국당 - 이회창 - 한나라당의 보수성과 민주당-국민회의-김대중-새천년민주당간으로 이어지는 상대적인 진보성이 매우 일관된 패턴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원택 2003, 76; 이내영 2002). 한편 이내영 · 정한울은 2005년 EAI 국가정체성 데이터와 2006년 EAI 지방선거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이념별 정당지지 패턴의 변

화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념적 재편 ideological realignment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며 주로 노무현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현상임을 주장하였다(이내영·정한울 2007).

17대 대선 결과는 한국사회의 이념성향별 정당지지패턴의 변화를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과반수에 육박하는 득표로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과거 여권 지지층의 이탈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7 대통령선거패널조사 결과는 과거 ‘반(反)한나라당’ 정서를 공유하고 있던 범여권 지지층에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유권자의 규모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당선에 큰 기여를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신의 이념성향은 진보라고 대답한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 소위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가 부상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사이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1)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사이의 불일치 현상은 증가하는 추세인가? 특히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는 과거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이들은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는 어떠한가?

(2)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변화했기 때문인가? 혹은 정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해 유권자가 무지한 때문인가?

(3) 이념 혹은 정당요인 이외에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를 초래한 제3의 요인은 없는가? 한국 유권자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결정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주의가 이념-정당 불일치 현상을 가져왔나? 혹은 이슈에 대한 태도 변화가 유

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의 불일치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진보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자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위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에 대한 해외의 주요 선행 연구와 이론적 시각을 정리하고 논의할 것이다. 3장은 최근 증가하는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을 선거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이론들의 설명력을 검증할 것이다. 4장은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증가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경제실적에 대한 평가라는 합의 이슈가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그 이론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이념성향 - 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한국학계에서는 이념-정당 지지가 불일치하는 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정치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층 분석을 위해서는 해외 학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선행연구 중에서 보수적 민주당 지지자 conservative Democrat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카마인즈 외(Carmines & Berkman 1994)와 쉬퍼(Schiffer 2000)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¹⁾ 그들은 각각 미국의 1972년~1988년과 1976년~1996년의 미국전국선거데이터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 이하 ANES 분석을 통해 공화당 지지자 중 진보주의자 liberal는 대체로 10% 이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보수주의자 conservative는 적어도 25% 내외에 달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현상이 현대 미국정치의 대표적인 일탈 anomaly 현상으로서 특히 정당 당파성과 이념 재편 realignment 이론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한다(Carmines & Berkman 1994; Schiffer 2000).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이론적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념-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을 이념/정당지지 재편의 부산물로서 보는 시각이다. 정당/이념 재편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이념/이슈 태도가 변화하면서 혹은 정당 스스로의 이념/이슈 위치가 변화하면서 정당일체감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Abramowitz & Sanders 1998; Carmines & Wagner 2006; Mayhew 2000). 이러한 재편과정은 엘리트나 정당 활동가들이 기존의 이슈/이념균열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슈를 동원하면서 발생하는 하향식 재편의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거시적인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무드 political mood의 변화에 의해 유권자의 이념과 이슈태도가 이동하면서 지지정당을 바꾸는 상향식의 재편도 가능하다. 이 입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수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정당/이념 재편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 immature realignment에서 나타나는 부산물로서 이해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편과정이 완료되어 가면서 정당-이념 간 불일치 현상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Carmines & Berkman 1994; Schiffer 2000).

둘째, 사회심리적 요인에 주목하는 이론적 시각에서 보면 일반 유권자들은 정치적 지식과 개념화의 수준이 낮아 본인과 정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오히려 이들은 정당일체감과 같은 정치심리적 요인에 의해 인식과 정치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정당일체감은 제반 인식을 채색하는 기계”이며 “유권자는 자신의 당파적 가치 partisan value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Zaller 2002), 정당일체감이 일단 활성화되면 유권자들은 객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이념/이슈 태도를 변경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

파성과 어울리는 이념적 상징 label을 선택한다(Bartels 2002, 117-21). 정당일체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심리적 정향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거 시기 초기에는 내면에 잠복되고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활성화되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념-정당일치 불일치 현상은 선거 초기 정당일체감이 활성화되기 이전이나, 정치적 지식 수준이 낮고 약한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나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김장수 2005b, 157). 셋째,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의 원인을 일부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적인 인식 heterodox perceptions에서 찾는 이론적 시각도 있다. 레비틴과 밀러 Levitin and Miller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대부분이 민주당 카터 후보를 공화당 포드 후보에 비해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보수적 민주당 지지자는 카터 후보를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보수적 민주당 지지자는 진보-민주당, 보수-공화당이라는 전통적 인식과 다른 인식체계에 의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Levita & Miller, 1979) 따라서 이 시각에서는 진보이념과 보수당 지지, 보수 이념과 민주당 지지를 일탈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위에서 요약한 해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세 가지 이론적 시각은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 주요 원인도 다르게 진단하지만, 이념성향-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이 이후 강화될 것인지, 약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전망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론은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사이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념성향과 정당지지는 단기적으로는 불일치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하지만 세 번째 이론적 시각에서는 앞의 두 시각과는 달리 이념성향-정당지지 사이의 불일치 현상을 일시적인 일탈 현상으로 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이념성향과 정당지지가 수렴될 것이라고도 전망하지 않는다(Layman & Carsey 2002; Layman et. al, 2006; 김장수 2005b).

앞에서 정리한 이론적 시각들은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라는 두 변수를 중심으로 이념성향과 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을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해외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시각을 활용하여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지정당 불일치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한 제3의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3의 요인으로서 (1) 지역정체성 (2) 경제적 합의이슈 valence issue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장수의 지적처럼 지역주의가 개인의 투표결정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한국에서는 지역정체성 regional identification이 서구에서의 정당일체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은 설득력을 갖는다(김장수 2005a, 165). 필자들은 지역요인이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교란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념과 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한편 지난 17대 대선에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온 핵심요인으로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경제운영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지적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정부여당의 경제실적에 대한 합의이슈가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동하였다는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 17대선에서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태도가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지지로의 이탈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였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성장 대 분배 문제'처럼 이념별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이념적 위치 이슈 positional issue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이념의 제약을 받기 쉽다. 그러나 합의 이슈 valence issue는 '강간범에 대한 처벌'처럼 쉽게 그 목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이슈를 말한다(Dalton 1996; Pattie & Johnstone 2008; 이내영·정한울 2007). 합의 이슈의 경우 목표보다는 실적과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유권자의 의견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이념 성향과 위치 이슈에 대한

태도가 일치할 때 이념 - 정당지지 일치 현상을 강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합의 이슈에 대한 태도 역시 이념 - 정당지지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합의 이슈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적 이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 경향을 강화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심화되는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이론적 논의

이 장에서는 이 글의 분석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의 규모와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우선 (1) 15대선부터 작년 17대선까지 얼마나 증가하는지 살펴본 후 (2) 2007년 대선패널 여론조사기간인 4월부터 12월 사이에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규모와 변화 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념성향-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에 대한 주요 이론적 시각의 타당성을 논의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정당의 이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념과 정당지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 양극화 현상이 이념성향-정당지지 불일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유권자들을 이념성향 - 지지정당패턴에 따라 8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주요 정당들의 이념적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념성향-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이 특정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이념위치를 독특하게 평가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이단적 인식체계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할 것이다.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변화 추세

17대선에서의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층의 급증

〈표1〉은 15대부터 17대 대통령 선거까지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념성향별 지지정당의 분표를 정리한 결과다.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규모를 보면 15대, 16대 선거에서는 매 조사 시점에서 자신이 진보라고 응답한 유권자의 11.0%, 11.7%만이 한나라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을 했다. 그러나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진보성향 유권자의 한나라당 지지 비율이 무려 32.4%로 크게 급증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응답자 중 18.0%만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선호한다고 답하고 12.3%만이 민주노동당을 선호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진보층에서도 한나라당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

〈표1〉 15~17대 이념별 선호정당 ²⁾

	15대 대선 (1997)			16대 대선 (2002)			17대 대선 (2007)				
	한나 라당	국민 회의	국민 신당	한나 라당	새천년 민주당	민주 노동당	한나 라당	대통합 신당	민주 노동당	민주당	창조 한국당
진보	43 (11.0)	156 (39.9)	52 (13.3)	72 (11.7)	212 (34.4)	65 (10.6)	166 (32.4)	92 (18.0)	63 (12.3)	44 (8.6)	31 (6.1)
중도	40 (16.6)	72 (29.9)	28 (11.6)	105 (21.7)	118 (24.4)	12 (2.5)	364 (43.0)	124 (14.7)	62 (7.3)	51 (6.0)	19 (2.2)
보수	118 (26.3)	123 (27.5)	40 (8.9)	173 (43.3)	75 (18.8)	9 (2.3)	409 (54.8)	70 (9.4)	55 (7.4)	29 (3.9)	16 (2.1)
전체	219 (18.3)	389 (32.5)	125 (10.5)	350 (23.3)	405 (27.0)	86 (5.7)	940 (44.5)	289 (13.7)	180 (8.5)	125 (5.9)	66 (3.1)

자료 : 선거학회 15대 대선(1997) · 16대 대선(2002),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통령선거패널 제3차 조사

주1. 칸 안에 숫자는 응답빈도, 괄호안의 숫자는 이념성향별 해당정당 선호 응답자 비율(%)

주2. 주관적 자기이념성향의 경우 모름/무응답 항목은 표기하지 않음. 선호정당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 미만
의 지지를 받은 정당과 없음/모름/무응답 항목은 표기하지 않음.

고, 반대로 진보적 유권자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과거의 이념성향별 지지정당 패턴이 완화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17대선기간 내 변화 :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감소

선거기간 중 이념 및 정당지지 패턴의 변화를 살펴볼 때 먼저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에서 나타나는 보수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2〉는 2007년 대선 기간 중의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 4월에 실시한 1차조사와 12월에 실시한 6차조사 사이의 이념성향별 정당지지 패턴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차와 6차 패널조사를 비교하면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분포가 진보의 비율이 줄고(30.0% → 22.5%), 보수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28.0% → 43.3%). 대선기간 중 이념적 보수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시에 주목할 점은 선거초기에 비해 선거말미에는 이념 - 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1차 조사에서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수는 217명으로 진보성향 응답자(634명) 가운데에서는 34.2%에 달했지만, 6차 조사에서는 123명으로 진보성향 응답자(476명) 내에서 25.8%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의 대칭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이면서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도 미세하게나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대폭 줄어들면서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 비율이 동시에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진보층 내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응답자들 중 다수가 자신의 진보적 이념적 정체성으로부터 탈피하여 6차 조사에서는 중도 혹은 보수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진보의 위축과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층의 축소라는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서 나타난다. 유권자의 이념적 변화가 정당지지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이념재편이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 정체성이라

〈표2〉 이념성향별 정당지지 패턴 비교 (1차 조사, 6차 조사)

		정당지지(1차) *							전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통합신당모임	무당파	모름/무응답	
이념 1차	진보	217 (34.2)	119 (18.8)	31 (4.9)	76 (12.0)	42 (6.6)	148 (23.3)	1 (0.2)	634 (30.0)
	중도	416 (47.8)	94 (10.8)	58 (6.7)	45 (5.2)	28 (3.2)	220 (25.3)	9 (1.0)	870 (41.2)
	보수	335 (56.5)	57 (9.6)	25 (4.2)	37 (6.2)	25 (4.2)	112 (18.9)	2 (0.3)	593 (28.0)
	모름/무응답	11 (68.8)	1 (6.3)	0 (0.0)	0 (0.0)	0 (0.0)	1 (6.3)	3 (18.8)	16 (0.8)
전체	빈도 (비율)	979 (46.3)	271 (12.8)	114 (5.4)	158 (7.5)	95 (4.5)	481 (22.8)	15 (0.7)	2113 (100.0)

		정당지지(6차) *									전체
		한나라당	대통합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창조한국당	다른정당	무당파	모름/무응답	
이념 6차	진보	123 (25.8)	120 (25.2)	8 (1.7)	61 (12.8)	0 (0.0)	28 (5.9)	5 (1.1)	130 (27.3)	1 (0.2)	476 (22.5)
	중도	325 (45.1)	102 (14.1)	16 (2.2)	34 (4.7)	5 (0.7)	16 (2.2)	8 (1.1)	214 (29.7)	1 (0.1)	721 (34.2)
	보수	560 (61.2)	85 (9.3)	24 (2.6)	42 (4.6)	2 (0.2)	14 (1.5)	5 (0.5)	183 (20.0)	0 (0.0)	915 (43.3)
전체	빈도 (비율)	1008 (47.7)	307 (14.5)	48 (2.3)	137 (6.5)	7 (0.3)	58 (2.7)	18 (0.9)	527 (25.0)	2 (0.1)	2112 (100.0)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통령선거패널 제1차 · 6차 조사

주1. 수치는 빈도수, 괄호안의 수치는 각 이념별 해당 정당 지지비율

주2.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p < 0.01$

는 궁극적인 정치성향이 선거과정에서 활성화되면서 정당정체성에 부합하는 이념정체성으로 수렴한다는 활성화 이론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념적 변화에 따라 정당지지가 변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이념적 보수화는 진보의 위축/진보적 한나라당 응답자의 축소와 함께 보수적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 확대에 이어질 때 타당성을 갖게 된다. 반대로 활성화 이론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적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 요인이 활성화되면서 한나라당 지지자 중 1차에서 진보를 선택했던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지지정당 색깔에 자신의 이념선택을 맞추어 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에는 굳이 이념적 보수층의 증가가 보수 정당지지 확대에 귀결될 필요가 없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차에서 한나라당 지지했던 사람 중 진보이념 성향을 갖는다고 잠시 ‘이탈했던’ 유권자들 중 일부가 ‘되돌아 온’ 과정이라면 굳이 한나라당 지지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표2〉에서 1차에서 6차로 보수층이 593명에서 915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한나라당 지지자는 1차 979명(46.3%)에서 6차 1008명(47.7%)로 불과 29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게 이념적 보수층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유권자들의 이념적 보수화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념재편 이론의 주장을 부정하는 경험적 증거이다. 따라서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한나라당 지지자 중 1차에서 진보라고 답했던 유권자의 상당수가 선거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지정당에 맞는 보수이념 라벨을 선택하는 정당일체감의 활성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권자와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

이 절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나

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와 정당의 이념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개인 유권자 수준에서 이념성향-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Carmines & Berkman 2004).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의 이념위치가 진보-보수의 양축으로 뚜렷하게 갈라질수록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표3〉은 2000년 총선 후 여론조사와 2007년 대선 5차 패널조사에서 유권자들이 평가한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 점수의 평균과 해당 정당 지지자의 주관적 자기 이념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당의 이념위치 평가를 보면 2000년에 비해 2007년 조사결과 유력 정당(2000년의 경우 한나라당-민주당, 2007년의 경우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 사이의 이념적 거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강원택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을 5.7점으로 인식하여 자민련(6.6점)에 이어 가장 보수적으로 파악한 반면, 민주당은 5.4점으로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4.2점으로 가장 진보적 정당으로 평가하고 있다(강원택 2003, 64).

그러나 2007년 대선패널 조사에서는 민주노동당이 4.2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받아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6.5로 가장 보수적인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하면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대통합신당은 창조한국당과 함께 4.5점으로 평가를 받아 2000년에 비해 왼쪽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초기 열린우리당과의 분당과정에서 잔류한 민주당의 경우 5.1로 약간 중도보수적 성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당경쟁을 주도하는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만을 놓고 보면 유권자들은 정당 사이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³⁾

〈표3〉 정당이념평가 및 각 정당 지지자의 자기이념평가 2000년~2007년 비교

분류		민주노동당	대통합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중심당	민주당	한나라당
정당이념평가	2007년	4.2	4.5	4.5	4.9	5.1	6.5
	2000년	4.2				5.4	5.7
정당지지별 자기이념평가	2007년	4.6	4.6	4.6	4.7	5.1	6.1
	2000년					4.8	5.2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통령선거패널 제5차 조사, 강원택(2003, 65)

주1. 정당이념 및 자기이념 평가점수는 0을 매우 진보, 5를 중도, 10을 매우 보수로 하여 응답한 수치의 평균값.

주2. 2000년 전체 유권자 자기이념 평균 4.7 전체 유권자 이념점수 평균은 5.5

둘째, 정당이념 위치와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이 매우 근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이미 이전 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강원택 2003, 67), 유권자의 이념적 태도와 정당에 대한 이념평가가 일치함으로써 다운즈가 주장한 것처럼 자신의 이념적 위치와 근접한 정당을 선택한다는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Grofman 2004). 이는 정당일체감이 이념적 균열선에 따라 형성된다는 이념적 재편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Abramowitz & Sanders 1998). 그러나 이념적 양극화 · 정당 간 이념적 거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보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자가 과거 선거에 비해 17대선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념 및 정당의 양극화가 직접적으로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유권자의 이단적 인식과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이념성향-지지정당 불일치 현상을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는 이론들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성향과 정당의 이념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단적 인식 이론은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자신과 정당의 이념 위치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와는 다른 이단적 인식 heterodox perception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을 대통합신당이나 민주노동당보다 진보적이라고 보는 이단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권자들이 실제로 이단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이단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이며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응답을 교차하여 8가지의 이념성향-정당지지 유형을 만들고 이들을 면밀하게 비교하였다. 범진보정당에는 5차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진보적(5점 미만)이라고 평가한 대통합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을 포함시키고, 중도정당으로는 T-test결과 95% 신뢰구간에 5점(중도)를 포함하는 국민중심당, 민주당을 포함시켰다. 보수정당은 한나라당, 무당파는 지지정당이

〈표4〉 이념-정당지지 유형별 정당이념평가 평균점수 비교 (ANOVA Test)

	정당이념평가 이념-정당지지	민주노동당* (4,2)	대통합신당* (4,5)	창조한국당 (4,5)	민주당* (5,1)	한나라당* (6,5)
진보	한나라당	4.4	4.7	4.8	5.0	5.8
	중도정당	5.7	5.3	5.4	5.2	5.9
	범진보당	3.6	4.0	4.4	5.5	7.2
	무당파층	4.2	4.8	4.5	5.5	6.3
보수	한나라당	3.9	4.1	4.5	5.1	6.8
	중도정당	3.8	4.5	4.6	5.5	7.5
	범진보당	4.3	5.0	4.6	5.2	6.7
	무당파층	4.4	4.8	4.3	5.0	6.4

자료: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통령선거패널 제5차 조사

주1. 정당이념 평가점수는 0을 매우 진보, 5를 중도, 10을 매우 보수로 하여 응답한 수치의 평균값.

주2. 칸 안의 수치는 유형별 정당이념 평가점수 평균. ()의 수치는 전체 응답자들의 정당이념 평가점수 평균.

주3. * ANOVA test 결과, $p < 0.01$

없다고 응답한 층을 의미한다. 이들 유형별로 정당이념 평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각 정당에 대한 이념평가 점수의 평균을 일원평균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했다. 〈표4〉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단적 인식 이론이 가정하듯이 이념-정당지지의 불일치하는 층의 경우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전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위치보다는 자기의 이념성향 쪽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들의 한나라당 정당이념 위치 평가가 6.5였던 것에 비하면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5.8로 상대적으로는 덜 보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진보적이면서 진보성향의 정당을 선택한 응답층이 한나라당을 7.2로 평가한 것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준다. 반면 대통합신당의 경우 전체평균은 4.5인데 반해 보수적 진보정당 지지층에서는 5.0으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대해서는 전체평균과 거의 비슷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어떤 유형에서도 평균적으로 각 정당의 좌우 이념 위치를 뒤바뀌 인식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즉 한나라당을 보수적 정당으로, 민주당을 중도 정당으로, 나머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이 개인 수준에서도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경합정당인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한나라당이 더 진보적’, ‘이념이 서로 같다’, ‘한나라당이 더 보수적’이라고 보는 경우로 분류하여 개인 응답자들을 분류했다. 그 결과가 〈표5〉이다.

우선 중도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나라당이 대통합신당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응답자가 15.9%였고 서로 이념적으로 비슷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10.4%였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보다 보수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73.7%에 달했다. 모든 응답유형에서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보다는 보수적이라는 정당(?)을 맞추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형 가운데서 26.2%와

〈표5〉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이념위치 평가 : 이념-정당지지 유형별 분포 (%)

	* 한나라당이 더 진보적 (-)	서로 같다 (0)	한나라당이 더 보수적 (+)
진보			
한나라당[122]	32 (26,2)	11 (9,0)	79 (64,8)
중도정당[8]	3 (37,5)	0 (0,0)	5 (62,5)
범진보당[209]	27 (12,9)	13 (6,2)	169 (80,9)
무당파층[130]	25 (19,2)	17 (13,1)	88 (67,7)
보수			
한나라당[560]	67 (12,0)	54 (9,6)	439 (78,4)
중도정당[25]	2 (8,0)	1 (4,0)	22 (88,0)
범진보당[141]	40 (28,4)	9 (6,4)	92 (65,2)
무당파층[180]	23 (12,8)	38 (21,1)	119 (66,1)
Total 1375 (100)	219 (15,9)	143 (10,4)	1013 (73,7)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통령선거패널 제5차 조사
주.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p < 0,01$

보수층에서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유형의 28,4%가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이단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당파들의 경우에는 두 당의 이념적 위치가 서로 같다고 보는 비율이 특정 정당 지지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두 정당의 차별성이 없다고 볼 때 무당파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진보 - 진보정당 지지, 보수-보수정당 지지로 이어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예상한대로 한나라당이 더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이 80%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진보 - 한나라당 지지, 보수 -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이념-정당지지 불일치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일수록 양 정당사이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역전된 평가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에서 불일치한 태도를 갖는 응답자들에서조차 10명 중 6명 이상은 양정당 사이의 이념적 위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단적 인식이론의 설명력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 누가? 왜?

이전 선거에 비해 17대선에서 크게 늘어난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층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은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첫째는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한국선거를 좌우해온 지역 요인과 함께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패턴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둘째는 유권자의 이슈에 대한 태도가 이념 - 지지정당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의 경제실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⁴⁾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진보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찾기 위해 자신이 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세대별 · 지역별 · 학력별 정당지지 분포를 살펴본 결과가 〈표6〉이다. 우선 전체 진보층 사이에서의 정당지지 분포를 보면 역시 범

〈표6〉 진보층 세대 · 지역 · 학력별 정당지지 (%)

		진보층				전체
		한나라당	중도 정당	범 진보정당	무당파	
연령*	20대	42 (28.8)	2 (1.4)	62 (42.5)	40 (27.4)	146 100
	30대	27 (17.4)	1 (0.6)	84 (54.2)	43 (27.7)	155 100
	40대	20 (24.4)	1 (1.2)	34 (41.5)	27 (32.9)	82 100
	50대 이상	33 (37.9)	5 (5.7)	29 (33.)	20 (23.0)	87 100
	서울	26 (24.5)	1 (0.9)	51 (48.1)	28 (26.4)	106 100
	인천/경기	32 (23.0)	1 (0.7)	57 (41.0)	49 (35.3)	139 100
권역*	대전/충청	12 (31.6)	0 (0.0)	16 (42.1)	10 (26.3)	38 100
	광주/전라	4 (5.8)	4 (5.8)	40 (58.0)	21 (30.4)	69 100
	대구/경북	21 (51.2)	0 (0.0)	12 (29.3)	8 (19.5)	41 100
	부산/울산/경남	27 (42.9)	2 (3.2)	23 (36.5)	11 (17.5)	63 100
	제주/강원	2 (12.5)	0 (0.0)	10 (62.5)	4 (25.0)	16 100
	중졸이하	27 (45.0)	4 (6.7)	13 (21.7)	16 (26.7)	60 100
학력*	고졸	34 (24.6)	1 (0.7)	58 (42.0)	45 (32.6)	138 100
	대재이상	62 (23.0)	3 (1.1)	137 (50.7)	68 (25.2)	270 100
	Total	123 (26.1)	8 (1.7)	209 (44.5)	130 (27.7)	469 100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통령선거패널 6차 조사

주1. 수치는 빈도수, 괄호안의 수치는 진보층내 각 배경변수별 해당 정당 지지비율

주2. 무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함

주3.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p < 0.01$

〈표7〉 보수층 세대 · 지역 · 학력별 정당지지 (%)

		보수층				전체
		한나라당	중도 정당	범진보정당	무당파	
연령*	20대	88	0	28	49	165
		(53,3)	(0,0)	(17,0)	(29,7)	100
	30대	108	3	38	38	187
		(57,8)	(1,6)	(20,3)	(20,3)	100
	40대	123	12	47	51	233
		(52,8)	(5,2)	(20,2)	(21,9)	100
	50대 이상	241	11	28	44	324
		(74,4)	(3,4)	(8,6)	(13,6)	100
권역*	서울	112	9	20	43	184
		(60,9)	(4,9)	(10,9)	(23,4)	100
	인천/경기	133	3	39	55	230
		(57,8)	(1,3)	(17,0)	(23,9)	100
	대전/충청	58	2	16	16	92
		(63,0)	(2,2)	(17,4)	(17,4)	100
	광주/전라	11	11	30	12	64
		(17,2)	(17,2)	(46,9)	(18,8)	100
학력*	대구/경북	103	0	1	16	120
		(85,8)	(0,0)	(0,8)	(13,3)	100
	부산/울산/경남	118	0	22	36	176
		(67,0)	(0,0)	(12,5)	(20,5)	100
	제주/강원	126	0	13	6	45
		(57,8)	(0,0)	(28,9)	(13,3)	100
	중졸이하	113	9	40	59	221
		(51,1)	(4,1)	(18,1)	(26,7)	100
고졸		244	13	47	51	355
	(68,7)	(3,7)	(13,2)	(14,4)	100	
대재이상	202	3	54	73	332	
	(60,8)	(0,9)	(16,3)	(22,0)	100	
Total	561	25	141	184	911	
	(61,6)	(2,7)	(15,5)	(20,2)	100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통령선거패널 6차 조사

주1. 수치는 빈도수, 괄호안의 수치는 진보층내 각 배경변수별 해당 정당 지지비율

주2. 무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함

주3.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p < 0.01$

진보정당을 지지한 응답층이 44.5%에 달해 가장 많았고, 무당파라고 응답한 층이 27.7%였다. 진보층 중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응답층은 26.1%였다. 세대별 구성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5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에서는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가 37.9%에 달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한 반면 범진보정당을 지지한 응답은 33.3%로 가장 낮았다. 한편 진보층에서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은 30대로서 범진보정당을 지지한 비율이 54.2%에 달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 비율은 17.4%에 불과했다. 20대 진보층의 한나라당 지지 비율은 28.8%로 30대만이 아니라 40대와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최근 20대의 보수화 추세를 뚜렷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역시 범진보 정당의 지역적 토대 역할을 해온 광주/전라 지역 진보층의 경우 58.0%가 범진보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영남출신의 진보층은 선호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을 꼽은 응답이 대구/경북 51.2%, 부산/경남 거주자의 42.9%에 달했다. 지역갈등의 두 축을 담당했던 영남과 호남 거주 여부가 이념과 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변수를 보면 대재이상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범진보정당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 중졸이하에서는 무려 45.0%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불일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태도와 이념적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과 교육수준을 필요조건으로 한다는 기존 논의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표7>에서 보수층의 정당선택을 비교해보면 진보층의 정당선택과 반대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층 중에서 한나라당지지 경향이 강했던 50대, 영남 거주자 층에서 보수이념-한나라당 선택의 일관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40대, 호남 거주자 층에서 보수이념-범진보정당지지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학력변수의 경우 진보층이건 보수층이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념-정당지지의 일치현상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이념-정당

지지를 일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정리하면, 그 동안 한국 정치를 강하게 규정해 온 지역요인은 정당 - 이념 불일치 현상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부각되고 있는 세대·학력(지적능력)도 정당 - 이념 불일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념성향 - 정당지지 불일치에 미치는 경제이슈의 역할

대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17대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였다. 노무현 정부와 집권당의 무능한 경제관리가 여당의 지지도를 하락시킨 핵심 요인인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CEO 경력을 부각시키고 경제회복을 약속하면서 정부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해외 학계에서는 경제상태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패티와 존스톤의 연구와 같이, 합의이슈 valence issues가 유권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쩍 늘고 있다(Patti & Johnstone 2008). 그러나 국내에서는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를 구분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 성과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오히려 성장-분배, 재벌개혁 등의 이념적 경제이슈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강원택 2003). 본 연구에서는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 혹은 보수적 진보정당 지지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경제에 대한 합의이슈 연구가 유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념성향-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의 역할을 이념적 위치이슈와 합의적 실적이슈⁵⁾의 구분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8>은 진보층과 보수층 각각에 대해 합의이슈와 이념이슈가 정당지지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우선, 진보층을 살펴보면 합의이슈와 이념이슈 모두 정당 지지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경제상태에 대해

〈표8〉 합의이슈 및 이념이슈가 지지정당 선택에 미친 영향 (%)

진보층			한나라당	중도정당	범 진보정당	무당파	전체 빈도
국가 경제 *	만족	정부책임	8.7	0.0	73.9	17.4	23
		비정부책임	14.3	0.0	60.0	25.7	35
	불만	비정부책임	25.7	1.9	40.0	32.4	105
		정부책임	48.1	1.9	28.3	21.7	106
재벌개혁 *		규제해제	53.6	0.0	23.2	23.2	56
		규제완화	26.6	1.9	43.0	28.5	207
		규제유지	15.4	1.9	46.2	36.5	52
		규제강화	19.4	1.9	53.5	25.2	155

보수층			한나라당	중도정당	범 진보정당	무당파	전체 빈도
국가 경제 *	만족	정부책임	53.6	0.0	26.7	20.0	15
		비정부책임	33.3	11.1	29.6	25.9	54
	불만	비정부책임	64.5	3.6	14.2	17.8	169
		정부책임	71.7	3.1	9.1	16.0	318
재벌개혁 *		규제해제	78.8	0.0	9.1	12.1	132
		규제완화	65.7	3.9	10.0	20.4	461
		규제유지	57.1	0.9	25.0	17.0	112
		규제강화	41.6	3.0	27.9	27.4	197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통령선거패널 4차(재벌개혁) · 5차(국가경제) · 6차(지지정당) 조사

주1. 전체빈도는 응답자수, 나머지 칸의 수치는 모두 합의이슈, 이념이슈에 대한 태도별 정당지지 비율을 보여줌

주2. 무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함

주3.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p < 0.01$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그 공이 정부에 있다고 보든 그 외의 세력에 있다고 보든 범진보진당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73.9%, 60%로 매우 높았다. 반면 재벌개혁과 같은 이념이슈는 재벌규제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는 층에서는 무려 과반수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응답자가 56명으로서 다른 응답에 비해 소수에 불

과했다. 재벌규제에 긍정적일수록 진보층에서도 범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주관적 자기이념 평가와 이념이슈에서의 태도가 일괄될 경우, 자신의 이념성향과 유사한 이념성향을 가진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보수층에서 진보층과 마찬가지로의 패턴이 나타난다. 보수적이면서 국가경제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경향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33.3%~53.3%)은 사실이지만, 범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비율도 27~30%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경제에 불만이 있거나 재벌규제를 해제시키는데 동의하는 보수층의 경우 높은 한나라당 지지율(78.8%)을 보이고 있다. 국가경제에 만족하고 재벌에 대한 규제에는 찬성하는 응답층은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진보정당을 지지하게 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이념성향-정당지지에서 많이 주목해온 이념적 위치이슈 못지않게 합의적 위치이슈가 이념성향-정당지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이탈요인을 강화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이슈에서 경제상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정부에게 탓을 돌릴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사이에 이념과 지지정당 사이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강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결과이다. 종합하면, 이념성향과 이슈에 대한 태도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층 내에서 경제 실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결합할 때, 이념적 이슈에서 보수적 태도를 가질 때 이념 - 정당 불일치 현상을 강화시킨다. 보수층에서 그 역이 성립하고 있다.

결론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17대 대선에서 과거에 비해 급증한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기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발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5대, 16대 대선에 비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와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비교적 정당간 이념성향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념성향과 근접한 정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 아래서는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의 유권자들 내에서는 오히려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층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이단적 인식의 소유자, 즉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역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일수록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이 불일치되는 비율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통합신당보다 진보적이라고 이해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5% 가량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단적 인식 이론은 부분적으로는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념성향 - 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단기간 동안에는 선거운동 초기에 비해 선거 막바지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구의 정당일체감 활성화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효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정치이념과 태도를 규정하는 유권자들에게 내재된 정치적 성향이 선거운동을 거치면서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이념과 태도의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성향과 정당지지의 불일치가 증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들은 두 가지 추가 변수를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답을 제공하고자 했다. 첫째, 한국에서는 정당요인이 이념적 태도를 규정하는 궁극적인 태도결정요인이 아니라 지역일체감과 같은 제3의 변수가 궁극적인 투표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유권자의 이념성향 및 정당별 이념성향의 차이가 분명해지고는 있지만, 지역정체성이 정당 선택에 있어 이념성향의 영향력을 교란시킴으로써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이념성향-정당지지패턴과 교차하는 경제적 차원의 합의 이슈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17대 대선이 경제선거였다고 볼릴 만큼 경제이슈의 중요성이 강해진 조건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과 실적평가와 같은 합의 이슈가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었던 진보성향 유권자의 이탈과 한나라당 지지로 선회하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념이슈 못지않게 노무현 정부의 경제실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자의 증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시각들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최근 증가하는 이념성향-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부분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한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확인된 각종 변수들이 외에 이념성향 - 정당지지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이론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가 다루는 이념성향 - 정당지지 불일치 현상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거의 다뤄본 적 없는 주제라는 점에서 일밀한 경험분석모형을 제시하고 과학적 검증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기존의 이론을 소개하고 한국의 현실에서 고려해야 할 설명변수들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수준에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변수들의 실제 영향력이나 설명변수로서의 타당성 여부는 보다 엄밀한 경험분석모형과 정교한 통계적 검증절

차를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는 경험적 검증 과제를 남기고 있는 셈이며 이는 후속 연구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
- 1) 여기서 보수적 민주당 지지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민주당에 대한 일시적인 정치적 지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 소속감과 심리적 애착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민주당에 대해 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을 갖는 유권자 층을 의미한다.
 - 2) 17대 대선패널조사의 경우, 지지정당 문항(1차~6차)과 선호정당(1~3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5대, 16대 대선여론조사의 경우 지지정당 문항 대신 선호정당 문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서는 질문문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선호정당 질문에 대한 응답을 비교했다.
 - 3) 다만 국민중심당이 중도에서 약간 왼쪽(4.9)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한 결과가 이색적이다. 그러나 국민중심당의 경우 대선후보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창당이후 소수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없었던 탓에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중심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구나 국민중심당 지지자의 자기이념평가의 경우 그 수가 너무 적어(10명) 의미 있는 해석은 어렵다.
 - 4) 여기서는 최종 6차 조사시점의 진보적 한나라당 지지층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 5) 본 연구에서는 단하나의 문항으로 적당한 합의이슈 문항이 없어 패티와 존스톤(2008)·달턴(1996) 개념에 부합하는 경제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을 결합하여 합의이슈로 활용한다. 반면 이념 이슈로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재벌개혁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